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는 길

-일명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 만에 받은 무죄선고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송기복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무죄 판결 이후 '기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히전해유' 하는 답변을 보내오셨기에, 어떻게 지내실까 몹시도 선생님 생각이 자주 났던 터였다. 한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생존자 강의'를 하신다기에 앞서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더니, “생존자……”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셨다. 보통 사람들은 '생존자'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정작 선생님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생존자라는 말, 이상했어요. 하기가 사경에서 헤매다 나왔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폭력으로 간헐했던 사람이죠. 나는 거기에서 나온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내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하면, 지난 삶을 회상하시면서 소름끼치는 기억에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셨다.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찬물을 별컹별컹 들이키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선생님은 유쾌하고도 따뜻한, 참 고우신 노년의 여성이었다. 인간이 가한 무지막지한 폭력을 겪고도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최소한 그것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은 선생님의 힘이었다. 이제는 생존자로서의 삶만 살아야 하기 보다는, 당당하고 평화롭게 사랑받고자하는 여성이자 인간으로서의 삶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성당에 가려고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때 '아 좋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더 평온하다고 할까. 희망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견뎌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보다는 나는 내일이 올 거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어머나 나 살았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요. 내가 이대로 눈감고 가면 그만인데 행복한 일이죠. 성당에 가면 좋은 분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나쁜 데로 가는 게 아니니까 행복하지. 나를 눈 가리고 어디 끌고 가봐. 불안하고 그렇지요. 옛날에 그랬듯.”

1982년 안기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조작

1982년 3월 2일, 신광여고에서 수업을 하던 39세의 송기복 선생님은 청주 안기부로 강제연행된다. 1980년 당시 안기부는 권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기복 선생님에게도 불법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간첩 혐의를 씌우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안기부는 '송씨 일가 간첩단' 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송기복 선생님의 아버지는 월북하였고, 1960년 4월 한 차례 부인과 장녀 송기복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안기부에서는 혹독한 고문으로 추궁하며 송씨 일가가 수차례 간첩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가족 간첩단 사건을 꾸며낸 것이다. 1983년 당시로는 드물게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대법원에서 두 차례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으나, 이는 안기부의 압력으로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훗날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반인권적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마침내 지난 2009년 8월 28일 재심에서, 송기복 선생님과 그 가족 분들은 27년 만에 무죄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요즘도 내가 수업 시간에 도망 다니는 꿈을 꾸니다. 출석부를 들고 교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수업을 하다가 숨는 꿈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실에서 애들 가르치고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제자들은 다 늙었지만, 그 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간첩이라고? 마지막 3교시 수업의 그 눈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서글렸을까. 의심에 찬 눈으로 봤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간첩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지?' 하고 아이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 때는 내 몸에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 먹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가르친 것도 없는데 스승의 대접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 준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 학교 계실 적에 멋지셨어요.' 해요. 고3 애들이 졸업할 무렵, 치마저고리를 입고는 우르르, 셋방 사는 우리 집으로 몰려와 파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었던가 감자 삶아 먹었던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요.”

국가의 폭력

선생님을 끝까지 인정해 주었다던 서너 명의 제자 분들은 그렇게 선생님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무죄 판결로 제일 큰 인정을 받으신 겁니까하고, 국가에서 나를 사과를 한 것이냐고. 그런데 선생님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사과? 누가 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까. 화해한 것도 없어요. 사과 받으려고 화해 받으려고 쫓아다녀야 했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고, 변호사든 누구든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처음에 송호창 변호사가 조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못 미더워서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당할 때도 법적으로 당했습니까. 그냥 끌고 갔어요. 산에서 뛰어놀던 우리를 붙잡아서 갖은 고문을 다 해놓고 간첩이라는 틀 안에 가둬 죄명을 붙여놓은 걸 국가가 벗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요. 가둬놓았으면 풀어주고는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라는 기관은 인간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아요. 그게 바로 국가의 폭력 아니겠어요. 국가라는 걸 등에다 업고는 하니까 국민은 당합니다. 고문 속에서, 유관순은 누구에게 맞았을까 그저 하나를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유관순은 그래도 행복했겠다. 유관순은 애국자 아니어요. 그 분은 당당하게 맞았을 것 같아.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나는 고작 ‘너 아버지 만났지?’, ‘아니요.’ ‘이북 갔지?’, ‘아니요.’ 더 서글펐어요. 더 분통 터지는 거야.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조국에 태어난 것이 내 운명 아니어요. 내 죄는 아니었거든요. 국가는 나를 어떤 틀에다 넣고 점점 조여간 겁니다.”

“재심 청구해서 판결 받을 적에, 재판장이 ‘무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 국가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그 때 나는 이 많은 바람이 가슴 안으로 들어와서 ‘헉’ 하고, 공허해서 못 일어나고 한참을 앉아있었습니다. 무죄..... 전야의 기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국가가 우리를 봐줘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를 봐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안기부에서 그랬어요. ‘때리고 보니까 간첩이 아니었어, 그러니 정말 미안해.’ 그렇게만 했어도 좋겠다는 거였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보호를 못했는데 나보고 국가를 생각하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나고 별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어떻게 상처를 주었던가를 이야기했다. 도와주겠다고 하여 때로는 믿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도, 원치 않는 말

들이 메아리쳐 돌아올 때도 있었노라고 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곧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왜 너희들이 안 풀어줘 이러면 바보예요. 내가 벗어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고 두드려야 열릴 겁니다. 마음 상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틀을 벗겨보려고 하다가 상처를 더 입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남편이 우리나라 멋지다고, 비록 나를 간첩으로 만든 나라이지만 적재적소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멋지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 내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83년에 무죄 판결했던 이일규 재판장님,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가지 못하게 했을 때 도와주신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못했어요. 그분들 혹시나 잘못 될까봐.”

계란 프라이와 눈물

그리고 83년 당시 사건을 맡아주었던 황인철 변호사 이야기를 했다.

“황인철 변호사는 교도소 안에서 만난 분입니다. 눈망울이 커요. 맑고 순수하고 동글동글하고 눈가가 축축한 게 보여요. 얘기하면 알잖아요.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미안한데.”

그리고는 이어 교도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란 프라이’라는 말에 눈물이 복받쳐 오를 적이 있는가.

“서울 교도소에 있을 땐데 집시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있었는데, 나는 고문 받고 후유증으로 걸음도 잘 못 걸어 벽에 붙어있는데, 여학생들 죄수복 입고 뛰다가 나를 지날 적에 “울리아씨예요?” 하고 묻고 가고, 또 돌아와서 “선생님 했어요?” 그리고 또 뛰는 거예요. 나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면 혼나니까. 나는 사상범이어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못하는 거야. 서서 얘기는 못하고 그저 지나갈 적에, “아줌마 변호사, 가족과 만나라고 해.” 그러면서 뛰어가요. 며칠은 걸린 것 같아요. “변호사 이름이 황인철이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이거는 영화 같은 거야. 마지막에 이들이 ‘황인철’, ‘황인철’하고 구호를 하면서 뛰었어요. 나는 그러면 또 잇을까봐 속으로 ‘황인철’, ‘황인철’ 그렇게 그 분을 만났어요.”

“또 구치소 안에 있을 적에 제자를 만났어요. 식구통에 물바가지 주고 밥그릇 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탁’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식구통에 계란 프라이가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계란 프라이를 보고 ‘저게 뭐지’ 하면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저걸 가지고 나를 어떤 식으로 잡으려는지, 함정인지 모르잖아요. 계란 프라이가 시한폭탄인 마냥 죽겠는 겁니다. 없애야 하는데, 계란은 먹고 죽으면 모르는데 접시는 어떡하라고. 누군가가 또 다칠 것 아니여. 그리고 떨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선생님 잡썬.’ 이러는 겁니다. 그 걸 울면서 먹다보니까 체했어요. 혼날 것 같으니까 얼른 먹은 거예요. 개가 혼나면 안 되잖아요. 계란 프라이만 보면 그 애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엄동설한의 장미 한 송이

더 모질게 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서로의 곁에 있었던 것 같다. 교도소 안에서 김장하던 날, 어떤 이는 허가 없이 송기복 선생님을 불러 내어 ‘김치 써는 순간만이라도 잇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어떤 이는 바늘 하나를 구해다 주었다. 그걸로 송기복 선생님은 목욕탕 수건을 한 올, 한 올 빼어 실 삼아 꽃무늬 수를 놓아가면서 가방도 만들고 양말도 떠서 그네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다. 교도소의 한 상급 여 교도관은 일부터 송기복 선생님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일을 부탁하면서 난로가 놓인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게 해주었다.

“지나고 보니까 하얀 겨울에 장미 보는 것 같이, 그 엄동설한에 차 한 잔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꽃 한 송이를 엄동설한에 어디 가서 누가 피울 거냐고. 그 꽃을 누가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감히 여러 사람 있는데서 부끄럽지만 축복받은 간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故송영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알고 보니 우리 남편 송영섭씨가 뒤에서 많이 배려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일찍 죽어도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고요. 무죄 받아야 하니까.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남

편은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줬어요. 국민학교 다닐 적부터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다고 할까. 학예회를 하면 나를 안 시켜. 그리고 유난히 구구단을 못 외워 벌을 더 받았어요. 그럼 청소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깜깜한 시골 길에서 우리 남편은 나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없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는 동성동본이라고 결혼을 반대했었다. 송영섭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코르셋에 돈을 찢러 넣고 잠옷에 고무신 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던 이야기를 했다. 집을 도망 나와 송영섭 선생님을 만난 것은 앓은뱅이 꽃이 들판에 만발했던 4월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해 6월 결혼을 했다.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중매 결혼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요. 내가 참 모자라고 애기 같은 데가 있어 영악하게 굴지를 못하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남편이 덮어주고 용서해 준 거요.”

애타게 무죄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모자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사신 것 아니냐는 말을 건네니, 그렇다, 옳다고 하면 생각도 않고 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 인터뷰든 증언이든, 과거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서글픈 일인데도 선생님은 그 다음날 몸살을 앓는 데도 또 다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날의 강연에서도 그 얼굴에는 격한 감정과 어둡고 지친 낮빛이 수차례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아무나 발휘할 수 없는 용기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한다고 하셨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침묵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전에는 무관심 했지요.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를 못했지. 교직에 있었을 때는 오로지 애들만 생각했지. 당하고 보니까 사회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것 아닙니까. 누가 치워주겠어. 내가 스스로가 못 치우거든. 누가 치워주었다면, 살아있는 동안 나도 열심히 빛을 갠야 하지 않겠어요. 무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만 가질게 아니라, 아직도 무죄 못 받은 사람을 생각을 해봐요. 나는 미안해요. 그이들도 애타게, 얼마나 목마르게…… 무죄를 바라겠습니까.”

글 최현정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발표했다.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페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